

독일 근현대사 해석들의 변화

문수현
(고려대 역사교육과 강사)

1. 서론

이 글에서는 1870년 독일 통일에서 제국시기와 1차 대전, 바이마르 공화국을 거쳐 나찌 체제가 대두하고 독일이 통일되기까지 독일 근현대사의 흐름을 바라보는 독일 역사학계의 해석들이 1945년 이후 현재까지 어떻게 달라져왔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근현대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문제는 현재의 역사 진행에 대한 입장과 긴밀히 결부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인 함의를 담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데, 분단과 냉전, 전범에 대한 처벌 문제, 통일 등 많은 쟁점들이 역사학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정치적 이슈들로 부각되었던 독일에서는 더욱 그러했다. 이 글에서는 독일사에 대한 해석들의 변화를 학계 내부 논의의 차원을 넘어 전후 독일 사회의 정치적인 맥락에서 파악함으로써 학문 내적인 논의의 전개와 사회의 기억 문화 사이의 상호 작용에 주목하고자 한다.

역사학적인 해석들, 즉 메타담론의 변화 역시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지적하는 패러다임 교체의 성격을 띠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수의 학자들이 동의하고 있으며, 이 글도 이러한 가정을 공유하고 있다.¹⁾ 콘라드 야라우쉬(Konrad H. Jarausch)에 따르면 역사학의 메타담론은 첫째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인물, 구조적인 연관관계들을 하나의 역사적인 서사로 묶어낼지를 결정하는 소재적인 측면, 둘째 이론적이고 방법론적인 차원, 셋째 구조적인 개념들, 서술상의 원칙 등을 포함하는 의미론적인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역사적인 텍스트들의 담론적인 기본구조들 등 네 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다.²⁾ 또한 앨런 맥길(Alan Megill)은 역사적인 패러다임의 특징으로 장기적인 역사 발전 노선을 추적하고, 복잡한 사건들의 연관관계를 간단한 기본 모형으로 환원시키며, 학문적인 연구와 사회일반의 역사 상(象) 형성 간의 연결 고리 노릇을 하고, 감정적인 호소를 통해서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꼽고 있다.³⁾ 이들에 따르면 역사학에서 패러다임 교체란 역사학적 탐구의 소재를 결정하는 차원에서부터 사회의 역사정책, 더 나아가 권력 관계의 변화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하나의 사회적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가정에 기초해서 볼 때 독일 역사학에서 최초로 등장하는 메타 담론은 드로이젠(Johann Gustav Droysen), 지벨(Heinrich Sybel), 트라이치케(Heinrich von Treitschke) 등 소위 “프로이센 학파”에 의해 19세기 중반에 대두된 민족주의 사관이었다. 이들은 비스마르크의 통일 전쟁, 1871년의 소독일 중심의 독일 국가 건립 과정 등으로

1) 이런 입장에 기반한 저서들로는 무엇보다도 다음을 들 수 있다.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Deutungslinien der deutschen Nationalgeschichte nach 1945*; Konrad H. Jarausch and Michael Geyer, *Shattered past: Reconstructing German Histories*; Lynn Hunt, “The Challenge of Gender: Deconstruction of Categories and Reconstruction of Narratives in Gender History”, in: Hans Medick/Charlott Trepp(Hg.), *Geschlechtergeschichte und Allgemeine Geschichte. Herausforderungen und Perspektiven*, S. 57-98.

2)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S. 17-18.

3) Allen Megill, "Recounting Past. "Description", Explanation and Narrative in Historiography", in: *American Historical Review*(1998) 94, S. 627-653.

이어지는 프로이센 중심의 국가 형성 과정을 해방의 과정으로, 그리고 프로이센을 민족적인 사명의 견인차로 설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각은 정치사 중심의 역사주의라는 방법론과 결부되고 통일된 독일 국가의 후원을 얻게 됨으로써 기존의 종교사, 왕조사, 지역사 서술을 몰아내고 지배적인 담론으로 자리잡아 갈 수 있었다. 민족중심의 역사서술은 동독의 경우 전쟁 직후부터 유물론적인 역사서술로, 서독의 경우에는 70년대에 들어 사회사적인 방법론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경로를 거친 현재 독일의 역사학계는 독일 통일과 유럽 통합의 진전 등 새로운 정치적인 국면에 처하고, 일상사, 여성사, 문화사 등 역사학계 내부의 새로운 방법론적인 도전에 직면하게 됨으로써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독일 역사학에서 있어왔던 이러한 패러다임 교체가 어떤 조건 하에서 일어날 수 있었는지, 어떤 이해관계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메타 담론들의 지위가 사회적 정치적인 조건들의 변화와 얼마나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프로이센 중심의 민족사적인 서술에 대한 대안으로서 19세기 말-20세기 초에 등장한 사회주의적인 역사서술이 소비에트 연방과 동독의 대두 등을 통해서 동독 내에서 메타 담론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독의 경우에는 독일 근현대사의 전개 과정을 서유럽 근대화 과정에서 벗어난 변종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사회과학의 방법론이 주도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과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상반된 두 가지 흐름이 합류하는 통일 이후의 변화에 대한 고찰이 그에 뒤따르게 됨은 물론이다.

2. 동독

제2제국, 바이마르 시기를 거치는 동안 민족사 중심의 주류 역사학에 대항하는 대안적인 역사서술이던 맑스주의적인 역사서술은 동독 건국과 더불어 사회주의 지배 체제를 정당화할 지배 이데올로기로 변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동독 통합사회당(Sozialistische Einheitspartei Deutschlands: SED)의 정치국은 1955년 역사 지침(Geschichtsbeschluss)에서 다음과 같이 이를 구체화한 바 있었다. "독일의 역사학은 무엇보다도 독일사의 초기부터 현대에 이르는 시기를 독일인민 대중들의 활동과 투쟁으로 탐구하고 서술하여, 우리 인민들이 자신들의 위대한 역사적인 성과를 자랑스러워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애국주의적인 과제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⁴⁾ 이에 따라 동독의 역사가들은 국가가 아닌 계급 갈등에 기초한 새로운 역사서술을 시도했다. 또한 전통적인 민족사 중심의 역사서술에 대해서는 방법론적으로는 사회경제적인 요소들을 소홀히 하고 발전 개념이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으로는 프로이센 국가의 팽창주의적인 대외정책을 지원하고 나찌 체제에 종속적이었던다는 점에서 비판하고 나섰다.

이들의 시도는 동독 건국 이후에 대학뿐만 아니라 맑스-레닌주의 연구소(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1949), 역사학 연구소(Institut für Geschichte)(1956) 등 무수한 대학 외부의 연구소들, 그리고 동독 역사가협회(Historikergesellschaft der DDR)(1958) 등 다양한 제도적 기반들을 마련해감으로써 동독 건국 10년 안에 거대담론으로서의 사회적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을 토대로 씌어진 동독의 대표적인 역사서술로는 1952년에 시작되어 1959년에 처음 단행본으로 발간되었다가 1969년 완간된 『독일사에

4) Klaus Große Kracht, *Die zankende Zukunft*, S. 32에서 재인용.

대한 대학 교재(Hochschullehrbuch der deutschen Geschichte)』, 1954년부터 1966년 사이에 씌어진 『독일 노동운동의 역사(Die Geschichte der deutschen Arbeiterbewegung)』, 그리고 1967년에 착수되어 독일이 통일됨으로써 미완으로 남게 된 『독일 민족의 역사(Die Geschichte des deutschen Volkes)』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러한 저서들을 관통하는 것은 물론 사회주의적인 메타 담론이었다. 『대학교재』의 경우 독일사의 전개과정을 소위 반동적인 흐름과 진보적인 흐름으로 나누고 있다. 봉건적인 동유럽 팽창, 반민족주의자들인 독일 영방제후들의 승리, 1848년 반동혁명의 승리, 비스마르크의 제국 건설에서 1차 대전, 나찌 체제의 대두와 서독 건설이 반동적인 흐름을 이룬다면, 1848년의 혁명과 1차 대전 전의 사회민주주의 운동, 스파르타쿠스 난, 독일공산당(KPD)과 SED가 진보적인 흐름에 놓여있다. 1980년대까지도 계속해서 저술되고 있던 『독일민족의 역사』의 경우 동독사의 중요성을 좀더 강조하고 있고, 비스마르크의 제국건설 등 『대학교재』에서 부정적인 것으로 거부되던 흐름들을 역사상의 유업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원시 공산사회 이래 독일민족사의 중심적인 내용이 사회진보를 향한 착취당하고 억압받은 자들의 투쟁과정이었다고 파악하는 등 사회주의적인 메타담론에 기반하고 있었다.⁵⁾

이렇게 사회주의 메타담론에 기반한 동독의 역사학에 대해 오늘날 독일 학계는 유사학문에 불과하다고 폄하하고 있지만,⁶⁾ 동독의 대표적인 역사저서들이 간행되는 과정은 동독과 같은 전체주의 체제에서조차도 역사학의 메타담론이 사회적 권력관계에 일방적으로 종속되지만은 않았음을 보여준다. 당시(黨史)를 간행할 정치적인 필요 때문에 당시 공산당 서기장이던 발터 울브리히트(Walter Ulbricht)가 직접 개입하여 만든 『독일노동운동사』에서도 1920년 캅 폭동(Kapp-Putsch)에 대한 공산당(KPD) 중앙의 태도에 대해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1939년 독소불가침 조약에 대한 서술에 개입하던 소련 측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당시에 있었던 일련의 정치적인 금기들을 넘어서고 있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독일민족의 역사』의 경우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에 대한 평가를 둘러싼 당 직속의 연구기관과 학문적인 연구소 간의 입장차를 극복하지 못하고 지연되다가 결국 25년간에 걸친 작업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게 되기도 했다.

3. 서독

3. 1. 사회사 대두 이전: 민족사적 서술의 연속성

1946년 당시 84세였던 프리드리히 마이네케(Friedrich Meinecke)의 저서 제목이 『독일의 파국(Die deutsche Katastrophe)』이었던 데서 보이듯이 근본적인 불안감이 독일사에 대한 전후 해석에서 지배적인 언어로 등장하고 있었다. 저항운동에 참여한 전력을 인정받아

5) 이 대표적인 동독 역사저서들이 저술되는 과정에 대해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Martin Sabrow, "Nationale Gegenerzählung in der DDR",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33-77.

6) 한스 울리히 벨러(Hans-Ulrich Wehler)는 20세기 독일 역사학에 대해 전체적인 조망을 하는 가운데 동독사에 대해서는 건설한 농업사나 몇몇 학자들을 제외하고는 언급할 가치가 없는 유사학문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Hans-Ulrich Wehler, *Historisches Denken am Ende des 20. Jahrhundert*, S. 43. 통일 과정에서 동독 대학 개혁을 주도했던 서독의 역사가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역시 이러한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위르겐 코카, 『독일의 통일과 위기』, S. 85.

1948년에 조직된 독일 역사가 협회(Verband der Historiker Deutschlands)의 초대 회장으로 추대되기도 했던 게하르트 리터(Gerhard Ritter) 역시 1946년에 쓴 그의 저서 『교양권력으로서의 역사(Geschichte als Bildungsmacht)』에서 "우리 역사상의 전체적인 토대가 위태롭게 되었다"고 말하고, "모든 전통들 자체가 붕괴되고 난 후" 중요한 것은 "새로운 전통, 새로운 공동의 신념, 새롭고 확고한 민족주의적인 자의식"을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⁷⁾

이러한 파국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당대에 이미 "독일 역사상에 대한 수정(Revision des deutschen Geschichtsbildes)"⁸⁾ 이라고 표현되었던 흐름이 한편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다. 마이네케는 1946년에 출판된 그의 저서 『독일사의 파국』에서 "우리의 군국주의적인 과거와의 급진적인 단절은 우리를 우리의 역사적인 전통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질문 앞에 서게 한다"고 지적하고,⁹⁾ 독일사에서 괴테로 대표되는 문화적인 경향과 프로이센의 군국주의라는 두 흐름을 구분하고 새로운 독일이 이 문화적인 흐름에 젖줄을 대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나찌 시기에 유대계 혈통으로 박해를 받았던, 『역사학 잡지(Historische Zeitschrift)』의 편집자 루트비히 데히오(Ludwig Dehio) 역시 『균형과 헤게모니(Gleichgewicht und Hegemonie)』, 그리고 『20세기 독일과 세계정치(Deutschland und die Weltpolitik im 20. Jahrhundert)』라는 저서에서 프로이센의 권력 정치를 비판하고 "양차 대전에서 독일이 한 역할에 대한 가차 없는 인식만이 독일이 현재 상황에 창의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본질적인 전제조건"이라고 주장했다.¹⁰⁾

그러나 2차 대전 직후 독일사의 지배적인 흐름은 독일사의 전체적인 흐름과의 비판적인 대면을 거부한 채 나찌 체제를 독일 민족사적 흐름 속에 있었던 긍정적인 사고(Betriebsunfall)에 불과하다고 해석하는 것이었다. 1958년 이후에야 제3제국에 관한 출판물이 검열 문제와 종이 부족이 심각하던 1945년 수준을 넘어설 수 있었다는 것은, 전쟁 직후 역사가들이 얼마나 나찌체제와의 직접적인 대면을 꺼리고 있었는지를 웅변한다. 예컨대 영국의 역사가 앨런 테일러(Alan J. P. Taylor)가 프로이센 국민성 자체와 군국주의, 더 나아가 전체 독일 근현대사의 전개를 직시할 때 나찌 체제의 등장은 필연적인 것이었다고 해석하고,¹¹⁾ 독일계 이민자인 페이트 발렌틴(Veit Valentin)이 나찌가 1871년 이래 독일의 과거사 전개의 총합이며 반유대주의가 독일 국민성을 가장 잘 평가하게 하는 예라고 서술하는 등¹²⁾ 독일 외부에서 독일사에 대한 원죄론적인 해석의 흐름이 지배적일수록, 40, 50년대 독일사가들은 히틀러 개인을 악의 상징으로 분류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거나, 나찌 체제를 외부에서 인식된 테러 체제인 것처럼 해석하고 있었다. 당시 대부분의 독일사가들은 나찌 체제를 이전 독일사의 전개과정에서 설명해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7) Christoph Cornelissen, "Der wiederentstandene Historismus",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88에서 재인용.

8) Klaus Große Kracht, *Die zankende Zukunft*, S. 25 에서 재인용.

9) Ebd.

10) Christoph Cornelissen, "Der wiederentstandene Historismus",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101에서 재인용.

11) A.J.P.Taylor(1945), *The Course of German History. A Survey of the Development of Germany since 1815*, London.

12) Veit Valentin(1947), *Geschichte der Deutschen*, Berlin.

전후 독일 역사학은 방법론상으로도 19세기 중반 이래 있어왔던 정치사 중심의 민족중심적인 서술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찌 체제하에서 있어왔던 생물학적이고 인종주의적인 언어들로부터는 명백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보편사의 이념, 과거의 사건에 대한 공감적인 서술, 개체화시키는 방법론 등 전통적인 역사주의적 방법론이 고스란히 유지되고 있었다.

전후 주도적인 역사가들이 제3제국 하에서 이미 학문 활동을 시작한 세대였다는 점에서 방법론상으로도 역사상의 측면에서나 혁신이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점을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다수의 역사가들이 나찌 체제하에서 체제를 정당화하는 데 기여했고 그들 중 상당수는 실제 정치적인 이슈들에 대해 조언자 역할을 맡기도 했지만, 1945년 이후 과거 청산의 차원에서 해직된 역사학 교수는 모두 24명에 불과했고, 반대로 히틀러 체제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130명의 역사가들 중 1960년경까지 귀국한 숫자는 20명에 불과했다. 남독일 연구공동체(Süd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의 대표로서 인종청소를 예비한 추천서를 썼던 오토 부르너(Otto Brunner)뿐만 아니라, 사상사적, 사회사적 방법이 가미된 근대적인 정치사를 주장했던 테오도어 쉬더(Theodor Schieder)나 사회사의 대두를 예비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는 베르너 콘체(Werner Conze) 역시 당대에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나찌 정권 하에서의 화려한 경력을 보유하고 있었다.¹³⁾ 나찌 체제를 19세기 이래 독일 근대화 과정에서 생겨난 구조적인 문제점들의 연장선상에서, 독일 정치 문화의 특이성에서, 그리고 1차 대전과 바이마르 시기의 결과로 보는 패러다임으로의 교체는 느리게 일어나고 있었다.

3. 2. 사회사로의 패러다임 교체

3. 2. 1. 피셔(Fischer) 논쟁

서독 사학계에서 민족주의적인 역사 패러다임이라는 19세기 중반 이래의 지배적인 역사학 지층을 최초로 뒤흔든 것은 피셔논쟁이었다. 1961년에 프릿츠 피셔(Fritz Fischer)가 900 페이지에 이르는 그의 저서 『세계패권의 추구(Griff nach der Weltmacht)』를 출간했을 때 그는 그 자신이 후일 한 인터뷰에서 말한 대로 "독일인의 자아인식의 뇌관을 건드렸다".¹⁴⁾ 독일이 1차 대전 이전에 이미 유럽 내에서 프랑스와 러시아의 영향력을 배제하고 장기적으로는 세계패권을 확보하려는 팽창주의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보수파뿐만 아니라 사회민주당 우익 계열까지를 아우르는 폭넓은 사회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는 것이 피셔의 주장이었다. 그는 저서의 말미에서 이러한 "오류의 연속성"이 1차 대전에서 2차 대전 시기까지 이어졌다는 주장을 펴으로써 그 폭발성을 한층 더 강화하였다.

1차 대전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한 전쟁일 뿐이었다고 보았던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균열을 내는 이러한 입장은 1차 대전에 직접 참전한 세대의 역사가들인 리터나 한스 헤르츠펠트(Hans Herzfeld) 등에 의해 주도되던 전후 서독의 역사학계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서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슈피겔(Spiegel)』지의 편집인 루돌프 아우그슈타인(Rudolf Augstein)이 피셔 편에 서서 "양차 대전은 유럽 내의 헤게모니, 더 나아가 세계패권을 추구하기 위한 독일의 전쟁"으로서, 베를린 장벽 및 동독체제와 마주서야 하는

13) 나찌 체제 하에서 역사가들의 역할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위해서는 다음을 볼 것. Hans-Ulrich Wehler, "Nationalsozialismus und Historiker", in: Ders., *Umbruch und Kontinuität*, S. 11-46.

14) Klaus Große Kracht, *Die zankende Zukunft*, S. 47에서 재인용.

등 독일 사회가 직면한 고통은 그 당연한 결과일 뿐이라는 글을 직접 기고하는가 하면¹⁵⁾, 『프랑크푸르트 알게마이네 차이퉁(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이 피셔를 논박하는 리더의 글을 신는 등 유력 여론 매체들이 피셔 테제를 둘러싸고 각각의 입장을 선명히 하고 나섰다. 그런가 하면 외무부가 한때 피셔의 미국 강연을 취소하기도 하고, 연방수상이던 루드비히 에어하르트(Ludwig Erhard)가 1차 대전 발발 50주년 연설에서 ‘어느 나라도 1914년에 의식적으로 전쟁을 도발하지 않았다’고 피셔 테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등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야기했다.

피셔 논쟁 자체는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 볼프강 몸젠(Wolfgang J. Mommsen) 등 특히 젊은 역사가들이 “방어적인 의도를 가지고 전쟁의 위험을 적극 무릅썼다”는 절충적인 합의에 도달하게 됨으로써 일단락을 짓게 되었지만, 1차 대전이 방어 전쟁일 뿐이라는 기성의 역사가들에 의해 합의된 역사상이 붕괴하게 됨으로써 1차 대전의 전쟁 책임론을 넘어서서 2차 대전, 혹은 독일 역사상 전체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의 필요성이 대두되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의 전환은 사회사라고 불리는 새로운 세대의 학자들에 의해 공고화되었다.¹⁶⁾

3. 2. 2. 사회사의 대두

피셔논쟁에서 시작된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구서독에서 역사학계의 지배적인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은, 근대화론에 기반한 사회사가 민족주의 중심의 전통적인 역사 서술을 타파하고 나서면서 가능했다. 1970년대 김나지움에서 사회교과로 통합될 위기를 간신히 넘기는 등 역사학의 정체성 위기를 지나면서, 일군의 역사가들은 역사를 정치적인 사건사로 축소시키고 국가를 과거 사건에 대한 가장 중요한 행위자로 보아왔던 역사주의의 근본 개념에 대해 반대하고, 새로운 방법론적인 모색을 시도했다.¹⁷⁾ 역사학의 패러다임 교체만이 역사학의 위기에 대한 해결책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였다.

1975년 출간되기 시작한 이들 사회사학파의 기관지 『역사와 사회(Geschichte und Gesellschaft)』의 부제 "역사적 사회과학을 위한 잡지(Zeitschrift für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가 잘 드러내듯, 이들은 먼저 사회학과 정치학, 통계의 방법 등 사회과학적인 방법론을 역사학에 도입하고자 하였다. 이들은 기본적으로 권력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공유하고 있었고, 소재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사건이나 인물보다는 구조와 역사적 과정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으며, 역사의 인과관계의 측면에서 보자면 국제정치적인 측면보다

15) Ebd. S. 55에서 재인용.

16) 피셔 논쟁이 사회사학파의 특수한 길 논의를 유도하는 기반이 되었음은 분명하나, 이 논쟁에 참여했던 주역인 피셔 학파의 이마누엘 가이스(Immanuel Geiss)는 40년 후에 쓴 회고록에서 사회사학파의 특수한 길 논의를 “좌파 지식인들의 자기저주”라고 칭함으로써 사회사학파와 명백히 선을 긋고 있다. Immanuel Geiss, "Zur Fischer-Kontroverse-40 Jahre danach", in: Martin Sabrow/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S. 49f.

17) 사회사로의 패러다임 교체가 역사주의로부터의 혁명적인 단절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사학파의 2세대라고 할 수 있는 토마스 벨스코프(Thomas Welskopp)는 역사적 사회과학이 베르너 콘체(Werner Conze), 테오도어 쉬더(Theodor Schieder) 등 구조사를 매개로 역사주의의 전통에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한스 울리히 벨러 자신도 실제 그의 저서에서 사건사와 개인의 역할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Thomas Welskopp, "Identität ex negativo".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109-139.

는 국내정치적인 측면을 중시하였다. 이데올로기상으로 이들은 역사서술의 가치중립성을 부인하고 오히려 계몽의 당파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즉 역사학이 사회 개혁과 정치적인 민주화에 기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던 것이다.

이러한 역사학 방법론상의 세대교체는 물론 독일사에 대한 전체적인 해석틀의 변화도 내포하고 있었다.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현재에 유익한 교훈들을 끌어내서 사회 진보에 기여해야 한다는 입장이던 이 역사적 사회과학의 경향은 물론 나찌 체제와의 비판적인 대면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기존의 역사학에서 독일사의 단절이라고 간주되어왔던 나찌 체제의 사회적인 전제조건들을 설명해내려는 것은 역사적 사회과학의 중심적인 관심사였으며, 이러한 시도들은 독일사의 특수한 길(Sonderweg)이라는 하나의 함의로 도출되기에 이르렀다. 독일의 역사가들은 원래 근대화론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에서 ‘근대화에 이르는 독일의 특수한 길’ 테제를 주장했었다. 이들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관료제, 노동계급을 위한 국가의 사회복지 정책을 통해 계급 갈등을 극복하려한 비스마르크의 사회 정책, 그리고 급속한 산업 발전 등이 독일사의 특수한 길을 구성하고 있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입장은 독일이 서유럽과 동유럽 사이에 위치하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은 채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특권의식의 소산이었다.

이에 반해 6, 70년대에 새롭게 등장한 역사적 사회과학파들은 독일이 유럽사의 발전 과정에서 이탈한 부정적인 의미의 특수한 길을 걸어왔다고 주장했다. 독일의 경우를 특수할 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척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평가함으로써 빌헬름 제국 시기의 긍정적인 특수한 길 논의는 그 의미가 전환되게 되었다. 이 부정적인 특수한 길 논의의 중심에는 전간기라는 전유럽의 위기에서 서구나 북구의 다른 비교할 만한 나라들과는 달리 왜 독일에서만 전체주의 체제가 등장하게 되었는가라는 의문이 자리하고 있었다. 1848년 혁명의 실패와 1864년부터 1871년까지의 통일 전쟁의 성공을 통해서 전통적인 세력인 귀족과 군부는 그들의 역사적 수명을 넘겨서 잔존할 수 있었던 반면, 1848년 혁명에서의 패배, 그리고 1878/79년의 보수화에 더해, 노동운동 세력들이 일찌감치 독자적인 정당을 창립함으로써 자유주의적인 시민층은 정치적으로 대단히 약화되었고, 그 결과 전체주의적인 체제의 등장을 막을 수 없었다는 것이 이 특수한 길의 근간을 이루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독일의 특수한 길 논의는 역사적 사회과학파가 서독 역사연구의 주류로 자리 잡게 됨에 따라 독일사에 대한 비판적인 상으로서의 입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물론 이러한 패러다임 교체는 학문 내적인 맥락에서만 설명될 수는 없다. “보다 많은 민주주의를 시도하자(mehr Demokratie wagen)”라는 모토를 가졌던 빌리 브란트(Billy Brandt) 수상 체제하의 개혁 국면, 그리고 이 시기에 있었던 대학의 양적인 팽창 등 사회적 조건들 자체가 독일사, 특히 나찌 체제와의 비판적인 대결을 의도하던 역사적 사회과학에 우호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서구를 비교의 척도로 삼고 있는 이 특수한 길 논의가 서구의 정치 체제를 지향하고 있던 서독의 신생 민주주의에 대한 정당화의 기반이 되어주었음은 말할 나위가 없다.¹⁸⁾ 사회사학계의 태두 한스 울리히 벨러(Hans Ulrich Wehler) 자신은 “역사적 사회과학: 그 30년 후의 중간 결산”이라는 논문에서 6,70년대 역사적 사회과학이 주류의 흐름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배경으로 홉스봄이 황금의 시기라고 명명한 6, 70년대의 경제적, 사회적 재건, 68혁명을 전후한 60년대 말, 70년대의 개혁적인 정치 국면, 그리

18) 사회사의 태두와 관련된 사회적 배경을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Paul Nolte,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in: Joachim Eibach/Günther Lottes(Hg.), *Kompass der Geschichtswissenschaft*, S. 53-68; Thomas Welskopp, "Identität ex negativo",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109-139.

고 진보를 낙관하는 근대화이론이 강력한 지적 매력을 발휘했다는 것 등을 꼽고 있다.¹⁹⁾

3. 2. 3. 역사가논쟁

과거사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에 기반한 사회과학과의 특수한 길 논의가 독일 역사상에 대한 하나의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는 것이 순탄한 길이 아니었음을 잘 보여주는 예가 1986/87년의 역사가 논쟁이다. 독일의 재무장이 이루어지고, 1982년 기민련의 헬무트 콜 수상이 집권하면서 좌파 역사가들 사이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역사해석으로의 "방향전환(Tendenzwende)"이 일어나고 있다는 우려가 심화되기 시작했다. 콜 수상이 이스라엘을 공식 방문한 자리에서 “늦게 태어난 축복”을 말함으로써 전후 세대의 전쟁 책임 면죄를 피하는가 하면, 그 비판자들에 의해 “특정한 역사상을 위로부터 부과하기 위한 시도”로 받아들여진 독일 역사 박물관 건립계획을 발표했다. 역사가 논쟁은 바로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을 배경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역사가 논쟁의 촉발계기가 된 에른스트 놀테(Ernst Nolte)의 저서 『독일과 냉전(Deutschland und der Kalte Krieg)』 자체는 이미 1974년에 출간되었던 것으로, 이 사실은 이 역사가 논쟁의 폭발력이 다름 아닌 80년대 중반의 정치적인 정세에 기반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놀테의 테제를 둘러싼 논란은, 나찌 체제와 패전으로 인한 독일의 전쟁책임 논란에 중지부를 찍고 민족정체성을 강화함으로써 서독 사회의 내적인 통합을 강화하고자 했던 당시 수상 헬무트 콜(Helmut Kohl)의 역사 정치적인 행보들에 대한 비판의 성격을 담고 있기도 했으며, 따라서 이 논쟁이 주로 일간지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었던 셈이다.²⁰⁾

위르겐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볼프강 몸젠(Wolfgang Mommsen), 한스 몸젠(Hans Mommsen), 한스 울리히 벨러 등의 좌파 학자들이 한편에, 그리고 안드레아스 힐그루버(Andreas Hillgruber), 클라우스 힐데브란트(Klaus Hildebrand), 그리고 미하엘 슈튀르머(Michael Stürmer) 등 외교사, 정치사 중심의 역사가들이 다른 한편에 섰던 이 역사가 논쟁은 독일사 해석을 둘러싼 문화적 헤게모니 다툼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쟁은 에른스트 놀테가 “나찌의 유대인 학살은 소비에트의 강제수용소에 그 기원을 두고 있으며, 나찌즘은 불세비즘의 테러에 대한 반작용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글을 일간지에 기고함으로써 촉발되었다. 이에 대해 하버마스가 현대사 서술에 나타난 “변명하는 경향들”이라는 제하의 기고문에서 에른스트 놀테뿐만 아니라 당시 콜 수상의 측근으로 박물관 건립에 직접 관여하고 있던 미하엘 슈튀르머(Michael Stürmer) 등의 보수적인 역사가들을 비판하고, 볼프강 몸젠 등이 하버마스 편에서 논의를 전개함으로써 전선이 뚜렷한 싸움으로 진화되었다.

이 논쟁은 결국 독일 사회가 집단적인 정체성 형성을 위한 역사적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두 가지 상이한 답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버마스과 좌파

19) Hans Ulrich-Wehler,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Eine Zwischenbilanz nach dreißig Jahren", in: Ders., *Die Herausforderung der Kulturgeschichte*, S. 145f.

20) 역사가 논쟁의 정치적인 배경에 대해 보다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이민호, 『독일, 독일민족 독일사: 분단독일의 역사외식』, 139-166; 한운석, 「독일적 특수성으로부터 서방적 정상상태로?: 20세기 독일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 『서양사론』 62, 82-84; Ulrich Herbert, "Der Historikerstreit. Politische, wissenschaftliche, biographische Aspekte", in: Martin Sabrow/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Hg.),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S. 94-113; Klaus Große Kracht, *Die zankende Zukunft*, S. 91-114.

역사가들은 전후 서독 사회가 서구 문화에 전면 개방함으로써 얻은 민주주의에 독일 정체성의 토대를 두자는 것이었고, 미하엘 스투르머 등 우파 역사가들은 부정적인 역사상으로 인한 서독의 국가 정체성 부재가 극복되어야 할 하나의 위험이라고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다. 역사가 논쟁 자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놀테가 고립되는 방식으로 일단락되지만, 독일사에 대한 비판적인 해석에 기반한 사회사적인 패러다임과 기존의 민족주의적인 패러다임이라는 독일사를 바라보는 두 상이한 독해법들이, 비록 학계의 세력 관계상 역전되었다고는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평행선을 긋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3. 2. 4. 탈근대적인 방법론들과 독일 통일

70년대 이후 서독 역사학계의 주도적인 흐름이던 사회사학과는 80년대를 지나면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도전에 봉착하게 되었다. 사회사가 전후 고도의 경제 성장에 기반한 미래지향적이고 낙관적인 사회분위기에 힘입어 역사연구를 주도하는 흐름으로 정착할 수 있었다면, 사회사에 대한 비판 역시 녹색당과 환경운동, 반핵 운동, 여성운동 등 근대화, 산업화에 대한 7, 80년대의 비판적인 사회분위기에서 짙게 되었다.

먼저 사회사가들이 근대를 자명한 가치 척도로 보는 것에 대해서 여러 차원에서 비판이 제기되었다. 노동계급, 아일랜드, 그리고 영 제국의 다른 인종들을 억압해온 영국사에 대해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던 지오프 엘리(Geoff Eley), 데이빗 블랙번(David Blackbourn) 등 영국의 두 좌파 학자는 구서독의 사회사가들이 서구를 이상화하는 경향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독일의 시민층이 사회사학과가 제시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했으며, 보다 넓은 유럽적인 관점에서 볼 때 독일의 산업화는 최초로 산업화가 이루어진 영국과 비교해서 그리 예외적이지 않았다는 것이 그들의 핵심적인 논거였다.²¹⁾ 또한 데트레프 포이케어트(Detlef Peukert)는 홀로코스트의 근대성을 주장함으로써 근대화론적인 시각에 기반한 사회사학과의 특수한 길 테제를 문제시했다. 그는 열등한 인종에 대한 박멸을 정당화하는 인종주의가 과학적 양상을 띠고 있었고, 효과적인 관료제 국가를 통해서 가능했으며, 진보된 과학을 사용하는 등 홀로코스트는 근대화의 결여가 아닌 근대화의 병리적인 현상이었다고 주장했다. 홀로코스트 자체가 근대성의 산물이라면 이 근대성이 독일사 전개의 실패를 평가하는 척도로 이용되어도 좋은가라는 의문이 남게 되는 것은 말할 나위 없다.

여성운동의 정치적인 문제제기가 학계에 수용됨으로써 본격화된 여성사 연구에서는, 근대화 이론에 기반한 사회사가 성의 역사에서 드러나는 것과 같은 무변화의 세계를 간과하기 일쑤였고, 사회사가 선호하는 계급 개념 역시 생산 활동의 영역에 지속적으로 종사하지 못하는 여성들의 역사를 담아내는 데 부적절하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²²⁾ 그러나 이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지금껏 배제되어온 성인 여성을 기존의 역사학적인 서술에 첨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들은 백인 남성 시민을 일반으로, 여성을 비정치적인 주변부의 카테고리로 설정해내는 기존의 역사해석 틀 자체를 부정하고, 역사 서술의 대상을 선택하고, 구분 짓고, 계서화하여 하나의 단일한 역사(Geschichte)를 만들어 내는 기존의 경향을 넘어서서 복수의 역사들(Geschichten)을 서술할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²³⁾

21) 엘리와 블랙번의 논의를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고재백, 「독일의 특수한 길 논쟁과 그 이후」, 『서양사연구』 14, 261-283.

22) Gunilla-Friederike Budde, "Das Geschlecht der Geschichte", in: Thomas Mergel/Thomas Welskopp, *Geschichte zwischen Kultur und Gesellschaft*, S. 125-150.

영화감독, 신세대 지방사가들 등 아마추어 역사가들에 의해 주도된 일상사 학파 역시 근대화론이라는 사회사의 토대에 대한 문제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들은 사회사가 근대화, 산업화 등 거대한 구조적인 변화에 지나치게 강조점을 두는 중심통합적인 시각을 견지함으로써 근대화 과정이 초래한 비용의 문제, 근대화 과정에 수반되는 긴장과 갈등의 측면을 간과해왔다는 점을 비판하고, 미시사, 구술사, 역사 인류학 등의 방법론을 통해 인간의 경험이 충분히 반영된 “아래로부터의 역사”, “내면으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해내고자 하였다.²⁴⁾ 이들의 도전은 노동자의 문화사, 나찌즘의 일상사 등 역사학계 내부의 논의를 풍부하게 하기도 하였지만, 무엇보다도 지역 박물관이나 다큐멘터리 등 역사학계 외부에 흡수되어 역사학의 지면을 넓히는 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²⁵⁾

사회사가들에게 무엇보다도 큰 방법론적인 도전이 되었던 것은 8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문화사적 방법론으로서, 한스 울리히 벨러나 위르겐 코카(Jürgen Kocka) 등 역사적 사회과학의 대표자들이 70년대 사회사가 대두될 당시의 논쟁과 맞먹는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는 토대 논쟁(Grundlagediskussion)으로 꼽고 지속적으로 논쟁에 참여하고 있다.²⁶⁾ 의미의 생산, 의미부여 과정, 문화적인 실천(Praktiken) 등 인간과 인간을, 그리고 인간과 환경을 매개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역사적인 실체들의 상징적인 측면들을 간과해왔다는 것이 사회사에 대한 문화사적 비판의 핵심이었다.

이와 같은 역사학 방법론상의 도전뿐만 아니라 예기치 않은 공산주의체제의 붕괴와 통일 역시 사회사의 보루를 약화시킨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즈음한 역사가들의 태도는 역사가 논쟁의 연속선상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당시 민족국가 자체를 수호해야 할 가치로 보고 있던 보수주의자들은 국가의 통일이 정치적인 정상성으로 복귀하는 길이라고 보았기 때문에 독일 통일을 통한 하나의 민족국가로의 발전이 정체성 위기의 종점일 수 있다고 주장해 왔었다. 이와는 달리 사회사학파의 학자들은 독일의 분단이 특수한 길의 결과라고 보고, 민주주의를 그 한편의 독일에서나마 실현하는 것이 독일이 특수한 길에서 벗어나 정상성으로 복귀하는 방법이라고 간주했기 때문에 독일의 통일 과정에 대해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고 있었다. 예컨대 대표적인 사회사가인 위르겐 코카는, 독일 통일에 대한 보수주의자들의 강조가 “서독을 미봉책으로만 보게 함으로써 서독 국가의 정체성을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한 바 있으며, 한스 울리히 벨러 역시 “역사적으로 진부한 민족의식으로부터 구체적인 정치적인 결음을 유도하려고 하는 경향”을 비판하면서 “독일 통일은 지나간 지 오래이고, 이러한 주

23) Karin Hausen, “Die Nicht-Einheit der Geschichte als historiographische Herausforderung. Zur historischen Relevanz und Anstößigkeit der Geschlechtergeschichte”, in: Hans Medick/Anne-Charlott Trepp(Hg.), *Geschlechtergeschichte und Allgemeine Geschichte*, S. 17-55; Hanna Schissler, “Hält die Geschlechtergeschichte, was sie versprochen hat? Feministische Geschichtswissenschaft und Meistererzählungen”,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194-213.

24) 일상사를 둘러싼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 안병직, 「일상의 역사란 무엇인가」, 안병직 외 지음, 『오늘의 역사학』, 23-78; 알프 뢰트케, 「일상사란 무엇이며, 누가 이끌어가는가?」, 이동기 등 옮김, 『일상사란 무엇인가』, 13-66; 김기봉, 「독일 일상생활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50, 175-238.

25) Thomas Lindenberger, “Alltagsgeschichte oder: Als um die zünftigen Grenzen der Geschichtswissenschaft noch gestritten wurde”, in: Martin Sabrow/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Hg.),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S. 74-91.

26) Hans Ulrich Wehler, “Kommentar”, in: Thomas Mergel/Thomas Welskopp(Hg.), *Geschichte zwischen Kultur und Gesellschaft*, 351-367; Hans Ulrich Wehler, *Historisches Denken am Ende des 20. Jahrhundert*, S. 57-60, 97-104.

장은 나찌 체제의 유산일 뿐”이라고 주장한 바 있었다.²⁷⁾ 분리되어 있던 두 독일의 통일로 영토적인 측면에서 볼 때 물론 대단히 축소된 형태이기는 하지만, 1871년 통일 국가 체제로 복귀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근현대사 사상 최초로 특수한 길에서 정상상태로 복귀하는 길에 서독 국가를 위치시키고, 통일이라는 민족주의적인 요구가 서독 체제를 위태롭게 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왔던 사회사가들로서는 최소한 새로운 과제를 안게 되었음은 분명하다.

4. 통일 이후의 역사학: 또 다른 메타 담론이 가능할 것인가?

탈근대주의적인 방법론의 대두와 맞물린 통일은 향후 독일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열린 상태로 남겨두었다.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주장하던 동독 역사서술은 말할 나위도 없고, 근대화 이론에 기반한 서독의 사회사 역시 방법론적으로나 정치적인 맥락에서나 혁신을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통일 이후 독일 역사학이 다시 민족주의적인 경향으로 변모하게 되리라던 초기의 우려는 이미 불식된 지 오래이며, 민족주의적인 역사서술은 독일 역사학계에서 주변적인 현상으로 남았다.²⁸⁾ 통일 이후 94년까지 동독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프로젝트가 750개에 이르렀고, 오늘날 현대사에서 동독사 연구가 가장 잘 연구된 분야에 속하는 등 나찌에 뒤이은 “두 번째 독재 체제”에 대한 학문적 관심은 대단히 높다. 그러나 대학과 유리되어 학문 연구 활동에만 종사하던 동독 특유의 체제인 다수의 아카데미들이 1991년 말까지 해체되고, 동독 대학의 학자들이 대거 교체되는 등 제도적인 기반들이 상실됨으로써 동독의 역사학계는 독일 역사 상(象) 전체에 영향을 미칠만한 흐름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²⁹⁾ 결국 통일 이후 독일 역사학계의 논의는 80년대부터 서독에서 지속적으로 있어왔던 사회사와 그에 대한 도전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벨러는 역사적인 사회과학이 문화적인 전통들, 세계상, 의미 구조, 종교, 행위자들의 “현실 (Realität)” 인식, 집단적인 정체성과 아비투스 등을 폄하해온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방치되어온 문화의 차원들을 부가적으로 첨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행위가 의미부여와 해석을 동반한다는 막스 베버의 행위 이론이나 구조가 역사적인 행위자들의 아비투스를 통해서 형성되고 유지되며 변모한다고 보는 부르디외의 이론 등을 새로운 방법론적인 모색의 토대로 삼을 것을 주장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문화사가 인과관계를 파헤치는 데 부적절할 뿐 아니라, 문화를 통합적인 것으로 파악하고 나아가 역사적인 과정에서 갈등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정체되고 미화된 형태로 역사를 서술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사회사적인 패러다임을 고수하고 있다.³⁰⁾ 벨러는 역사적 사회과학이라는 방법론적인 틀을 고수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 아니라, “특수한 길” 테제가 독일사를 해석하는 상으로

27) Klaus Große Kracht, *Die zankende Zukunft*, S. 118에서 재인용.

28) 통일 이후 독일 역사상을 다시 민족주의화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다음을 볼 것. Konrad H. Jarausch/Michael Geyer, *Shattered Past*, p. 50-54; Matthias Middell, “Europäische Geschichte-global history, Master narratives-Fragmentierung?”,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S. 244f.

29) 통일 이후 동독 역사학계가 서독학계에 흡수된 과정과 그 과정의 논의를 보기 위해서는 위르겐 코카, 『독일의 통일과 위기』를 참조.

30) Hans Ulrich-Wehler,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Eine Zwischenbilanz nach dreißig Jahren”, in: Ders., *Die Herausforderung der Kulturgeschichte*, S. 145f.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근대에 이르는 다양한 전통들을 인정하고, 귀족의 역할을 축소하고, 부르주아의 영향력을 확대해서 고려한다고 해도 나찌체제가 왜 독일에서만 일어났는가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게 된다고 보고, “특수한 길” 논의가 이에 대한 답으로서 유용하며, 이를 사회의 근본적인 합의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한다.³¹⁾ 향후 독일 역사학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하여 벨러는 유럽이 단일한 행위의 장으로 통합됨으로써 비교연구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으며, 제국주의 연구나 산업화과정에 대한 연구 등이 가지던 주도권이 약화된 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 국제관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 천착할 필요가 강화되었음을 지적하고 있다.

위르겐 코카 역시 여성사, 일상사, 문화사 등이 지적하고 있는 사회사의 방법론적인 한계에 수긍하고 젠더, 역사의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주관적인 경험들을 역사적 사회과학이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는 하지만, 정체성 형성과 관련되는 “문화”란 역사적 실체가 가지는 하나의 측면일 뿐 권력 관계나 사회적 불평등 등을 중시하는 “사회” 개념의 중요성을 대치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역사학의 기능의 측면에서도 여전히 현실 사회의 문제들과 연관되는 문제점들에 천착해야한다고 보는 등 기본적으로 계몽의 의무를 포기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가 통일 이후 역사학이 다루어야 할 중요한 현실 문제로 꼽는 것은 세계화와 경제의 중요성이다. 그는 세계화, 3차 산업화에 잇따른 대량 실업의 문제 등 현재 경제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증대되고 있다고 보고 경제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세계화라는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여 국민 국가 간의 비교뿐만 아니라 역사가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떻게 뒤섞이고, 상호 영향을 주고받았는지, 지역적인 현상들이 세계사적인 맥락과 어떻게 결부되고 있었는지를 밝히는데 치중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³²⁾

그러나 콘라드 야라우쉬(Konrad H. Jarausch)는 역사적 사회과학이 문화사 등 새로운 방법론들의 도전을 제한적으로 수용한다고 하더라도 다시 메타 담론으로서 의미를 획득할 수 없으리라고 본다. 문화사, 일상사, 여성사 등 새로운 방법론들이 단순하게 사회사적인 틀에 스스로를 위치시키려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독일사에 대한 새로운 메타 담론 후보군으로 그는 다양한 흐름들에 주목하고 있다. 먼저 그는 전체주의 이론을 통해 나찌와 동독이라는 두 독재체제를 설명하려고 하거나 홀로코스트에 대한 감수성을 발전시키는 등 20세기의 처참한 경험들을 지적으로 다시 해석하려는 경향들이 통일 이후 역사학의 새로운 출구일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사회의 소수자들이 그들 자신의 메타 담론을 발전시키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장 성공적인 예로 그는 성의 역사를 제시하고 있고, 유대인의 역사, 혹은 지역적 정체성의 역사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유럽연합이 하나의 정치적인 실체로서 공고화되어감에 따라 전 유럽적인 시각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으며, 한걸음 더 나아가 초국가적인 연결망의 형성, 그리고 개개 국가를 넘어서는 문화적, 정치적, 경제적 상호 종속성 등에 관심을 가지는 세계사(Weltgeschichte)를 서술하려는 시도도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이렇게 다양한 층위의 역사서술을 통해서 독일인들의 역사를 더 이상 하나의 단일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서로 충돌하는 정체성들 간의 상호 작용으로 보고, 이를 통해 역사를 보다 거대한 복잡성 속에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³³⁾

31) Hans-Ulrich Wehler, “Das Ende des deutschen “Sonderwegs””, in: Ders, *Umbruch und Kontinuität: Essays zum 20. Jahrhundert*, S. 89.

32) Jürgen Kocka,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Auslaufmodell oder Zukunftsvision?”, Elektronische Publikation von Uni. Oldenburg 1999.

마티아스 미델(Matthias Middell) 역시 민족사적인 시각을 보존하려는 노력, 유럽적인 역사상을 확보하려는 시도, 그리고 세계화 담론의 강력한 영향력 등 세 가지 차원의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에 주목하지만, 야라우쉬와는 달리 이 흐름들이 중첩적으로 공존하기보다 훨씬 복잡한 양상으로 드러나고 있다고 본다. 예컨대 지역적인 것을 재발견하려는 논자들은 지역이 국가의 하위범주로 계서화되는 과정이 역사상 하나의 예외적인 현상이었을 뿐이었다면서, 기존의 민족사 서술에서 배제되어왔던 유럽 내 지역들 간의 연관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가 하면, 국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논자들은 세계화와 국민 국가의 연관관계의 측면에서도 세계화의 흐름 앞에서 국민국가들의 중요성이 약화되기보다 국민국가가 세계화의 추진 세력으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었고, 국가가 여전히 하나의 단일한 정체성 형성의 틀로서 유효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한 유럽사 서술의 경우에도 유럽의 지리적인 경계가 불분명하며, 유럽을 파악하는 방식에서도 민주적인 여러 체제들의 함으로 파악할지, 혹은 유럽화 과정의 산물로서 파악할지가 불분명한 상태로 남아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³⁴⁾

현재 독일 역사학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론들, 시각들이 실험되는 르네상스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이렇게 역사학 방법론의 다양화가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사회사학과는 특수한 길 논의를 통한 나찌 체제에 대한 비판적인 고찰이 정치적인 편차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함의로 유지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통일 이후 동독사의 문제점들이 1945년이 가지는 역사적인 전환점으로서의 의미를 약화시키고 보수적인 민족주의적 메타 담론이 부활할지 모른다는 통일 직후의 우려와는 달리, 나찌 체제를 해석하는 문제가 여전히 독일 사회에서 폭발력을 지니는 소재라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1996년 700여 회에 걸쳐 언론에 보도된 미국의 정치학자 다니엘 골드하겐(Daniel Goldhagen)의 저서 『자발적인 히틀러의 사형집행인들』을 둘러싼 논란이나,³⁵⁾ 나찌 국방군(Wehrmacht)의 범죄에 대한 전시회가 전독일에서 90만 관객을 모을 수 있었던 사실 등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전쟁직후 보통의 독일인들이 히틀러와 나찌 체제가 독일을 전화로 몰아간 주범일 뿐이며 자신들은 체제의 희생자라고 보았다가 1970년대에 들어서서 젊은 세대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독일 사회가 행한 범죄가 낳은 고통에 최초로 공감하게 되었다면, 미국의 정치학자 다니엘 골드하겐의 저서나 나찌 하 독일군대가 저지른 범죄에 대한 전시회를 둘러싼 2000년대의 논란은 나찌와 2차 대전에 대해 직접적인 경험을 갖지 못한 세대가 전쟁범죄에 대한 독일의 책임을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역사적 사회과학의 성과로 남게 될 전망이다.

33) Konrad H. Jarausch, "Die Krise der nationalen Meistererzählungen",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Deutungslinien der deutschen Nationalgeschichte nach 1945*; Konrad H. Jarausch/Michael Geyer, *Shattered Past*, S. 85-110.

34) 그의 주장을 좀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는 다음을 참조. Matthias Middell, "Europäische Geschichte oder global history? Fragen an die Leittexte der Zukunft", in: Konrad H. Jarausch/Martin Sabrow,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Deutungslinien der deutschen Nationalgeschichte nach 1945*, S. 214-252.

35) 다음을 참조. 이진모,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42, 249-267; Norbert Frei, Goldhagen, "Die Deutschen und die Historiker. Über die Repräsentation des Holocaust im Zeitalter der Visualisierung", in: Martin Sabrow/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Hg.),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S. 138-151; Volker Ullrich, "Eine produktive Provokation. Die Rolle der Medien in der Goldhagen-Kontroverse", in: Martin Sabrow/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Hg.),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S. 152-170.

5. 결론

이상에서 전후 독일사 서술 상에 나타난 패러다임 교체 양상을 살펴보았으며, 이 패러다임 교체가 역사학 방법론상의 쇄신뿐만 아니라 사회의 정치문화의 변화와 긴밀히 결부되어 있었다는 점을 확인했다. 냉전체제가 공고화되는 과정이 없었다면 동독의 변증법적인 유물론은 말할 나위도 없고, 과거사와의 비판적인 대면을 거부한 역사주의적인 서술이 주된 흐름으로 자리 잡게 될 수 없었을 것이며, 6, 70년대의 정치적인 개혁국면이라는 배경 없이 사회사의 도래를 설명할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탈냉전 시대와 통일, 그리고 유럽 통합의 가속화라는 역사적인 배경을 배제하고서는 역사학 방법론상으로나 해석상으로나 현재 펼쳐지고 있는 다양한 흐름들을 이해하기 어렵다. 근현대사에 대한 역사서술은 그 자체로 현재 진행형의 역사이기도 했던 것이다.

향후 독일사를 탈국가적이고 유럽 정체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서술하게 될 것인지, 또는 국민국가로의 정상화 과정으로 서술하게 될 것인지, 혹은 방법론상으로 역사적 사회과학과가 공고화될 것인지, 복수의 방법론이 정착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분명한 답을 내릴 수 없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향후 독일사 서술이 나아가게 될 방향 역시, 동독인, 서독인, 이주민 등 상이한 기원을 갖는 사회 성원들을 어떻게 포함하게 될 것인지, 더 나아가 유럽 통합 및 세계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라는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제기들을 독일 사회가 해결해나가는 과정과 궤를 같이하게 되리라는 것이다. 학문적인 연구의 공적인 반향이 얼마나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대규모 기류에 영향을 받는지, 역사가들이 학자이자 동시대인으로서 그들의 연구 대상을 선택하고 방법론을 결정하는 데 얼마나 그런 기류들에 지배받아왔는지는 전후 독일사 연구에 대한 간략한 조망을 통해서도 분명히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참고문헌

- 강성호(2003), 「독일사」, 『역사학보』 179, 381-403.
- 고재백(1993), 「독일의 ‘특수한 길(Sonderweg)’ : 논쟁과 그 이후」, 『서양사연구』 14, 261-283.
- 김기봉(1996), 「독일 일상생활사,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서양사론』 50, 175-238.
- 김승렬(2004), 「동·서독 분단과 나치 과거극복(1945-1990)」, 『독일연구』 8, 1-19.
- 안병직 외 지음(1998), 『오늘의 역사학』, 한겨레 신문사, 서울.
- 안병직(2003), 「과거청산과 역사서술: 독일과 한국의 비교」, 『역사학보』 177, 225-246.
- 이민호(1990), 『독일, 독일민족 독일사: 분단독일의 역사의식』, 느티나무, 서울
- 이진모(1998), 「나치의 유대인 학살과 ‘평범한’ 독일인들의 역할: 골드하겐 테제를 둘러싼 논쟁」, 『역사비평』 42, 249-267.
- 이진모(2003), 「전후 독일의 탈나치화와 과거 청산-성과와 한계(1945-1950)」, 『독일연구』 5, 59-88.
- 전진성(1999), 「서독 ‘구조사’ 서술의 지적 배경과 성격: 근대성 비판과 방법론적 혁신의 상호관련을 중심으로」, 『서양사론』 61, 5-30.
- 한운석(1999), 「독일적 특수성으로부터 서방적 정상상태로?: 20세기 독일인의 민족적 정체성의 변화」, 『서양사론』 62, 77-104.

- Eibach, Joachim/Günther Lottes(Hg.)(2002), *Kompass der Geschichtswissenschaft*,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Iggers, Georg G., *New Directions in European Historiography*, 이민호/박은구 옮김 (1982), 『현대사회사학의 흐름』, 전예원, 서울.
- Hans Mommsen(1995), 「독일사에서 민족과 민족주의」, 『서양사론』 47, 203-212.
- Jarausch, Konrad H./Martin Sabrow(2002), *Die historische Meistererzählung: Deutungslinien der deutschen Nationalgeschichte nach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Jarausch Konrad H./Michael Geyer(2003), *Shattered past: Reconstructing German Historie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ocka, Jürgen(1999), *Historische Sozialwissenschaft: Auslaufmodell oder Zukunftsvision?*, Elektronische Publikation von Uni. Oldenburg.
- Kocka, Jürgen, *Die Vereinigungskrise zur Geschichte der Gegenwart*, 김학이 옮김 (1999), 『독일의 통일과 위기』, 아르케, 서울.
- Kocka, Jürgen/Renate Mayntz(1998), *Wissenschaft und Wiedervereinigung: Disziplin im Umbruch*, Berlin: Akademie Verlag.
- Kocka, Jürgen(2004), 「불편한 과거사의 처리: 1945년 및 1990년 이후 독일의 집단 기억과 정치」, 『독일연구』 7, 113-132.
- Kracht, Klaus Große(2005), *Die zankende Zunft: Historische Kontroversen in Deutschland nach 1945*,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 Lüdtke, Alf, *Alltagsgeschichte*, 이동기 외 옮김(2002), 『일상사란 무엇인가』, 청년사, 서울.
- Medick, Hans/Charlott Trepp(Hg.)(1998), *Geschlechtergeschichte und Allgemeine Geschichte. Herausforderungen und Perspektiven*, Göttingen: Wallstein.
- Megill, Allen(1998), "Recounting Past. "Description", Explanation and narrative in Historiography", *American Historical Review* 94, 627-653.
- Mergel, Thomas/Thomas Welskopp(Hg.)(1997), *Geschichte zwischen Kultur und Gesellschaft: Beiträge zur Theorie*, München: Beck.
- Sabrow, Martin/Ralph Jessen/Klaus Große Kracht(2003), *Zeitgeschichte als Streitgeschichte: Grosse Kontroversen seit 1945*, München: Beck.
- Wehler, Hans-Ulrich(1995), *Die Gegenwart als Geschichte*, München: Beck.
- Wehler, Hans-Ulrich(1998), *Die Herausforderung der Kulturgeschichte*, München: Beck.
- Wehler, Hans-Ulrich(2001), *Historisches Denken am Ende des 20. Jahrhundert 1945-2000*, Essen: Wallstein.
- Wehler, Hans-Ulrich(2000), *Umbruch und Kontinuität: Essays zum 20. Jahrhundert*, München: Beck.

<Abstract>

The alternation of dominant paradigms in German Historiography

Mun, Soo-Hyun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rvey the changes of German historiography after the World War II and to reflect up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presentation of the German past in historiography and the social and political culture. The survey of this article clearly shows that the changes of the dominant version of presenting German development were closely related with the dominant tendency of political culture: The cold war system not only strengthened the Marxist interpretation in East Germany, but also facilitated the continuation of the Nationalist version of German historiography in West Germany. The predominance of the Critical History of Society in the 1960s, 70s in West Germany can be engendered by the reform phase of the German politics at that time, just as the predicament of the social history and the methodological shifts toward the postmodernism were coincided with the political reunification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European Union.

주제어: 독일 사학사, 민족사, 맑스주의 역사서술, 역사적 사회과학, 문화사, 메타 담론.

Keyword: The National History, Marxist History, the Critical history of society, Meta Narrative, German Historiography, Cultural History.